

보도설명자료 (‘21. 3. 4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석유화학단지에서는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
부산물로서 부생수소도 생성되는 것으로, ‘수소 생산 때
다량 유해물질 배출’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
(3.4, 국민일보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석유화학단지에서는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
부산물로서 부생수소도 생성되는 것으로, 동 기사에서 언급한
‘수소 생산 때 다량 유해물질 배출’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
- ◇ 3.4일 국민일보 <수소 생산 때 다량 유해물질... 3개 산단 年 8만
3000t 배출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- 현재 한국에서 대부분의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
부생수소이며, 이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배출
 - 주요 산단(대산, 울산, 여수)에서 연간 배출하는 질소산화물(NOx)이
연간 300만대 이상의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량 수준이며,
중국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(SOx)도 함께 배출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석유화학단지에서는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CO₂,
NOx 뿐만 아니라 부산물로서 부생수소도 생성되는 것임
 - 부생수소는 공정내 열원의 연료 등으로 사용 또는 대기로 배출하고
있으나, 이를 정제해 수소차, 연료전지발전소 등에 활용함으로써
부생수소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
 - 따라서, 동 기사에서 언급한 ‘수소 생산 때 다량 유해물질 배출’은
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임

※ 문의: 신에너지산업과 최연우 과장(044-203-5390),
신에너지산업과 이승원 사무관(5395)